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7. ③ 08. ③ 09. ② 10. ①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① 17. ④ 18. ②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② 27. ② 28. ② 29. ② 30. ⑤
 31. ④ 32. ③ 33. ③ 34. ② 35. ⑤ 36. ④ 37. ⑤ 38. ③ 39. ② 40. ③
 41. ① 42. ② 43. ④ 44. ⑤ 45. ④

[1~3] 화법

1. 연설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연설자는 연설 도입 부분의 ‘여러분, ~ 떠올려 봅시다.’, 연설 마무리 부분의 ‘건강한 지구를 ~ 동참합시다.’와 같이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갖자는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019년 통계에 따르면’과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설자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갖자는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연설자는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와 같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하지만 ~ 뛰어납니다.’와 같이 반박하여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연설자는 연설 도입 부분에서 청중과 공유하는 환경의 날 행사 때의 경험을 들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⑤ 연설자는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처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연안 생태계의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연설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연설자는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하자고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연설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연설 관련 그림 자료 및 이에 대한 설명 내용은 ‘연안의 염생 식물과 ~ 블루카본이라 합니다.’라는 연설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그 동안 우리나라는 ~ 힘써 왔습니다.'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한다. ③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한다. ④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이라는 포스터의 내용은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라는 연설 내용과 일치한다.

3. 연설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해설 :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연설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에 공감한 학생이 '㉠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하는 말로는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② 연설 내용에 따르면 블루카본은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저장한 탄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는 연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말이다. ③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연설의 취지이므로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는 연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말이다. ⑤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연설의 취지이므로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자.'는 연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말이다.

[4~7] 화법, 작문

4. 화법과 작문의 다양한 성격 이해

정답 해설 : (가), (다)와 달리 (나)는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참여자들('학생1~3')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는 (나)만 해당한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나)의 '(고개를 끄덕이며)'처럼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는 개인이 등교할 때 발생한 자신의 경험을 다룬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의 게시글인 반면, (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공동의 문제에 대해 건의하는 '학교 게시판'의 게시글로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가)보다 (다)에서 '-입니다'와 같이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② (나)에서 '홈피'라고 지칭된 대상이 (다)에서는 '홈페이지'라고 지칭되는 부분에서 일상 대화보다는 줄인 말을 잘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다)보다 (나)에서 조사의 생략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부분에서 공식적인 글보다 조사의 생략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는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의 게시글이고, (다)는 '학교 게시판'의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가), (다) 모두 '문어 상황'이지만 (가)에서는 '되게', '친구하고'처럼 구어적인 특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나)와 유사한 구어적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학생 2'는 [A]에서 '학생 1'의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라는 의견에 대해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B]에서도 '학생 2'는 '학생 1'의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갯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이라는 발화를 듣고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와 같이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와 같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1'은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갯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와 같이 자신과 관점이 같은 다수의 학생이 있음을 언급하여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3'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조하여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6. 건의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은 □□경찰서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체적 수치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은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보기>의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에 해당하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자가용 등교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므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예상 독자의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⑤ ㉤은 현재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희망을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7. 건의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해설 : (나)에서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과 같이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에서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여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먼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가용 등교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는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제시하는 건 어때?’와 같이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고 있으며, (다)에서는 ‘오늘 아침 ~ 안전했나요?’와 같이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하여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와 같이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에서는 3문단의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와 같이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와 같이 자가용 등교 자제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에서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 갖게 될 것입니다.’와 같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

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⑤ (나)에서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가용 이용 자제’와 ‘주변을 살피며 등굣길 걷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에서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와 같이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8~10] 작문

8.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자료3>은 2004년이라는 ‘연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나)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작성된 ‘초고’는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작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초고’의 2문단과 3문단에서 물을 마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료1>의 ‘내용’인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은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② ‘초고’의 1문단에서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학생들의 인식과 달리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료2>의 ‘내용’인 ‘물 중독 사례’가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④ <자료4>의 내용인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은 ‘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⑤ <자료4>는 ‘연례 보고서’라는 보고서의 성격과 2013년이라는 ‘연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나)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9.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해설 : 1문단의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의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을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의 ‘피로감이 커지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의 ‘연구팀은 ~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다.’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법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의 ‘목이 마를 때 ~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보기>에 제시된 조건은 첫째,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과 둘째,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하는 것’이다.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라는 문장은 첫째 조건을,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은 둘째 조건을 충족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 물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③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거나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문장은 물을 마시는 양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목마르지 않는데 마시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도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의 긍정적인 가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물은 많이 마실 수록 좋다는 인식도 그러하다.’라는 문장은 물을 마시는 양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1~15] 문법

[11~12] 담화 응집성에 필요한 형식적 장치와 의도를 드러내는 문법 요소

지문 해설 : 이 글은 담화의 개념을 밝히고 담화가 내용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 내의 발화나 문장들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담화 내의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형식적 장치인 지시, 대용, 접속 표현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담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는데, 이 글에서는 높임 표현과 문장 종결 표현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지시, 대용, 접속 표현과 의도 구현에 활용되는 문법 요소

11. 담화의 특성

정답 해설 : ㉠의 ‘거기’는 영선의 발화에 언급된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는 내용상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주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② ㉢의 ‘거기’는 영선의 발화에 언급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③ ㉣의 ‘여기’와 ㉤의 ‘거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선희가 보여 준 사진에 등장하는 ‘해수욕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 ④ ㉥의 ‘그리고’는 두 발화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2. 높임 표현 및 문장 종결 표현

정답 해설 :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화자는 ‘드리-’를 통해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의 의미를 고려할 때,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화자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화자는 높임의 어휘 ‘계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⑤ ‘-렴’은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고 오는 행동을 청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13.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 해설 : 선행 체언인 ‘아바님(아버님)’은 존칭의 대상인 유정물이기 때문에 ㉠은 관형격 조사 ‘스’이 쓰인 ‘아바님 곁’이 되어야 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선행 체언인 ‘그럭(기러기)’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이고 음성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인다. ③ 선행 체언인 ‘아들(아들)’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이고 양성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이’가 쓰인다. ④ 선행 체언인 ‘수풀(수풀)’이 무정물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스’이 쓰인다. ⑤ 선행 체언인 ‘등잔(등잔)’이 무정물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스’이 쓰인다.

14. 문장의 짜임

정답 해설 : ㉠이 서술어인 문장은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인데, 여기에서는 ‘주기적으로 운동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주격 조사 ‘가’와 함께 쓰여 주어의 기능을 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다)’인데, 여기에는 명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원하(다)’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④ ㉠이 서술어인 문장은 ‘(계획(을)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인데, 여기에서는 ‘계획(을) 세우-’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⑤ ㉠이 서술어인 문장은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하(다)’인데,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 세우-’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주격 조사 ‘가’와 함께 쓰여 주어의 기능을 한다.

1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띄어쓰기)

정답 해설 : ㉠의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의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들 조사들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한편, ㉣의 ‘뿐’은 ‘다만 어떠한거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뿐’이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정답 ㉤

[16~21] 독서

[16~18] 인문 - (가)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 (나) ‘과거제의 부작용과 개혁 방안’

(가) 지문 해설 : 이 글은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킨 제도이다. 과거제는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기여하여 지식인 집단을 폭넓게 형성하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선교사에 의해 유럽에까지 전해진 과거제는 세습적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서구의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주제]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과거제

(나) 지문 해설 : 이 글은 과거제의 부정적 측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자들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제는 사회적 유동성의 확대라는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만 매달림으로써 재능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관리들이 출세 지향적 성향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성과만 중시하여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주제] 봉건적 요소를 접목하여 과거제를 보완하려는 개혁론의 등장과 그 배경

1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 (가)의 3, 4문단에서는 과거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안정과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음을 ‘~(으)로써 ~ 증대시켰다/기여했다’ 등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유)으로 과거제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과거제로 인해 합격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학습, 인재들의 재능 낭비 문제와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익명성에 대한 회의를, 3문단에서는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능력주의적 태도의 문제점과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인한 부정적 모습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의 등장과 관련하여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는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과거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나) 역시 과거제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했던 유형원, 고염무, 황종희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과거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구체적인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여 과거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④ (나)는 과거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과거제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글로 과거제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나)는 과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나 과거제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최종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인 과거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떨어진 사람들도 지방의 관료로 채용되기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문단에서 과거제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과거제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의 앞부분에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언급하였다. 인성이나 실무 능력은 그 사람의 됴됨이와 관련되므로 ㉡은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 ㉠으로 인해 응시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은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가)에서는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하였다. 한편 (나)에서는 관료 선발에 봉건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의 등장 배경 중 하나로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다는 설명도, ㉡이 관직의 세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 과거제는 고전과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의 하나이므로 ㉠으로 인해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은 과거제를 통한 관료 선발의 부정적 측면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로 인해 ㉡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은 과거제가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2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병’은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제는 고전과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을 평가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실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답 ㉤**

[오답 피하기] ㉠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갑’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가)

의 2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주의적 시험인 과거제가 지닌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성격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을’이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을 안타까워한 것은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③ ‘을’은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제 하에서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로 시험이 치러진 것에 주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병’은 책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한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㉔의 ‘매달리다’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려 있다.’의 의미이다.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의 ‘매달리다’ 역시 동일한 의미이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㉓의 ‘두다’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이다. ‘열쇠를 방 안에 두고’의 ‘두다’는 ‘일정한 곳에 놓다.’의 의미이다.

② ㉖의 ‘되살리다’는 ‘죽거나 없어졌던 것이 다시 살다.’의 의미로 쓰이는 ‘되살다’의 사동형이다. ‘기억을 되살렸다’의 ‘되살리다’는 ‘잊었던 감정이나 기억, 기분 따위가 다시 일다.’의 의미로 쓰이는 ‘되살다’의 사동형이다.

③ ㉔의 ‘걸치다’는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 이어지다.’의 의미이다.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의 ‘걸치다’는 ‘가로질러 걸리다.’의 의미이다.

⑤ ㉔의 ‘어렵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의 의미이다. ‘형편이 어려울수록’의 ‘어렵다’는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의 의미이다.

[22~24] 문학

[22-24] 현대시 - (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가) 지문 해설 : (가)는 광복 후 민족의 미래를 고고한 태도로 모색하는 지사적 풍모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광복의 기쁨 가운데, 수난을 겪었던 과거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성찰하고 있다. 절제된 어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나) 지문 해설 : (나)는 도심 속 나무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처와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도시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화자는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 있는 가로수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이는 삭막한 도시의 환경에서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에서 도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무의 삶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으며,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2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숨으라', '사양하라'에서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인 '새별', '사슴과 토끼'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도시가 나무에게 /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 붕붕거린다는 것, ~ 뜯어 먹는다는 것', '나무는, 알고 보면 / 치욕으로 푸르다' 등에서 도시에서 꽃을 피운 나무의 모습에 대한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시월상달'을 통해 계절감을 연상할 수는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서 '도시'의 '도로변'이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가)에서 '높으디높은 산마루', '떠오르는 햇살'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이나 화자가 바라는 지향점 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므로 자연의 위대함을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서 '붕붕거린다는 것', '아삭아삭',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나무'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의 '나래 떨던 새별아 숨으라'에서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에서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무를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에서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은 없다. (나)의 '참을 수 없다 나무는'에서 도치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의 맥락과 주제 의식을 고려해 볼 때,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다.

2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 해설 : [A]의 '무엇'은 화자가 '울'면서 '간구'한 대상으로 화자가 과거에 염원했던 것이고, [B]의 '무엇'은 [A]에서 '간구'했던 '무엇'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래 떨던 샛별'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대상을 의미하고 '향기로운 싸릿순'은 평화로운 세계에서 대상들이 서로 '사양'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B]에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A]에서 화자는 '못 박힌 듯 기대어' '울어 왔'다고 했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B]에서 화자는 '옷자락을 날리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A]의 '긴 밤'은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던 부정적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B]의 '맑은 바람 속'은 화자가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2연의 '이 아침'에 '시들은 핏줄의 굽이굽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온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피리의' '가락을 더듬'은 후에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보기>의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치욕으로 푸르다'는 척박한 도시 환경에서도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기 위해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나무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욕으로 푸르다'를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의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들뜬 뿌리라도 내리'려는 화자의 모습은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한 나무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의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와 연관 지어 감상할 때,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의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시

그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25~28] 독서

[25~28] 기술 -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 해설 : 이 글은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의 흔들림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인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은 이미지 센서에 닿는 빛의 세기 변화를 자이로 센서가 감지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고, 제어 장치가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영상을 안정화하는 기술이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발생한 힘으로 렌즈를 이동시켜 영상의 흔들림을 감소한다. 이외에도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흔들림을 감소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한편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영상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연속되는 프레임들에서 특징점의 위치 차이를 계산하여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특징점의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OIS 기술은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의 한계로 인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반면 DIS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 시간이 길어지고 보정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한 경우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떨어질 수 있다.

[주제]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과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

2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프레임 간 피사체의 위치 차이를 줄여 영상을 보정한다.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영상을 보정하는 기술은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의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를 통해,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의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를 통해,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와 2문단의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를 통해, 손 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고, 보정 기능이 없다면 이러한 빛의 세기 변화로 인하여 영상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빛의 세기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따라서 자이로 센서가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것은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이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이다. 또한 이미지 센서에 피사체의 상이 맺히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빛의 세기에 비례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되므로,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것은 영상이 아니라 피사체의 상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의 구성 장치 중에는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가 있으며, 보이스코일 모터는 렌즈를 움직여서 동영상을 보정하는 장치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문단의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발생한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4문단에서 OIS 기술은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3문단에서 코일에서 발생한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는 방법과 이외에도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상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7.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특징점으로는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 선택되므로,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

다. 또한 특징점으로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도 선택되므로,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작을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한편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리므로,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시간은 늘어난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③, ⑤ 특징점들의 수와 보정에 필요한 프레임의 수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특징점들이 많아지더라도 보정에 필요한 프레임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2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DIS 기능을 통해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을 잘라내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 ㉠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이는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IS 기능에 의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특징점은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부분은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빌딩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각 특징점들의 ㉡, ㉢ 프레임 간 위치 차이를 계산하여 ㉠을 보정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④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 ㉢ 모두 OIS 기능으로 손 떨림이 보정된 프레임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피사체가 기울어진 이유는 렌즈의 이동 범위의 한계로 인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OIS 기능은 카메라로 촬영할 때 작동하는 기술이므로, 촬영이 끝난 후에는 OIS 기능으로 ㉠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에서 피사체가 기울어진 것을 보면 ㉡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로 보정하기 전이므로 DIS 기능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29~33] 독서

[29~33] 사회 - '지식 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지문 해설 : 이 글은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 즉 지식 재산의 보호 문제와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식 재산으로 수입을 거두는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ICT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각 국에 세워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며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서도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통한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며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주제] 디지털세 도입의 배경과 지식 재산 보호

29.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 3문단에서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4문단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상이한 국가별 입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1문단에서는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영업 비밀의 범위와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함은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법인세의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는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로열티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

30.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 2문단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하는 것은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불거진 결과이므로 디지털세의 도입은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 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ICT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3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 Z사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세운 자회사를 ㉠라 하고, 법인세율이 A보다 높은 B국에 세운 자회사를 ㉡라고 할 때,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로 하여금 ㉠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CT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는 ㉠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해야 하므로 ㉠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의 이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인 ㉡의 수입이 많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로 하여금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CT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⑤ 2문단에서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로 하여금 ㉠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하여 ㉡의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이윤을 최소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는 ㉠에 비해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높고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고,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3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A]에서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어 접근 비용을 줄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A]에 따르면,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중시할 수 있다. 따라서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지적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목적으로 <보기>의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② [A]에서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④ [A]에서 소개한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보기>의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라고 하였으므로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을 때보다 낮아졌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⑤ [A]에서는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 즉 유인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즉 접근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3.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 해설 : ICT 다국적 기업인 Z사는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수입 중 일부를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의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출하도록 하여 A국의 자회사의 수입을 늘린다. 2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국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하였으므로 Z사가 A국에 세운 자회사는 이윤이 늘어나도 법인세를 적게 낼 것이다. 따라서 Z사는 B국의 자회사는 이윤을 최소화하여 내야 할 법인세를 줄이는 반면 A국의 자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므로 ㉔를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로 바꿔 쓸 수 없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ICT 다국적 기업인 Z사는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B국의 자회사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이윤은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의 이윤은 늘리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㉔를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ICT 다국적 기업인 Z사는 ㉔의 과정에서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㉔를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㉔는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B국의 자회사가 A국의 자회사에 지출하는 로열티는 제반 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㉔를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로 바꿔 쓸 수 있다.

[34~37] 문학

[34~37] 현대 소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1990년대 후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인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을 '전(傳)'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차용하여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향토적인 방언과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마을의 굶은일에 열성을 다하는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과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대비하고 있는데, '전'의 형식은 현대인들의 메말라 가는 인정을 풍자하고 암울한 농촌 현실을 효과적으로 고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주제] 이타적인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㉔에서 '민 씨는 모른다'는 앞서 황만근이 말한 '팔죽 할머니'에 대해 민 씨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부분으로, 이를 통해 황만근의 이야

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이 들려준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② [A]의 황만근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라는 구절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B]의 토끼의 '말'은 [A]에서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기이한 체험의 이야기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B]의 '말'을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이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황만근의 집으로 들어온 '어떤 처녀'로 [B]에는 '어떤 처녀'의 말이 제시되지 않는다. ⑤ 평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바보 취급했다는 점과 [B]의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구절을 고려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A]에서 황만근이 들려준 '이야기'를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⑤ 황만근의 어머니는 밥 덩어리로 인해 목이 막혀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만, 집에 도착한 황만근이 어깨를 흔들면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하게 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황만근의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을 황만근에게 속은 토끼의 복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토끼가 말을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의 전개는 신이한 존재와 대면하여 위기를 겪는 주인공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다는 민담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언어의 주술성은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의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토끼가 황만근에게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세 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황만근과 대결을 펼치던 토끼는 동쪽 하늘이 부엌에 밝아 오기 시작하자 황만근을 놓아주겠다고 말하지만, '니는 인자 죽었다'라는 황만근의 말을 들은 후 당황하여 다급하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놓아줄 것인지를 묻게 되고, 이에 황만근은 자신의 소원을 세 가지 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황만근이 토끼를 위협하는 발언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사람을 향해 말을 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토끼는 '신이한 존재'에 해당한다. 황만근은 처음에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토끼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설 정도로 무서움을 느끼지만, 토끼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자 토끼를 향해 '바보 자숙아'라고 말하게 된다.

[38~40] 문학

[38-40] 고전 시가 - 정철, '관동별곡'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1580년 작가 정철이 45세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내금강·외금강·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면서 본 뛰어난 경관과 감흥을 노래한 가사이다. 시상 전개에 따라 내용을 4단으로 나눌 수 있다. 1단에서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에 은거하고 있다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2단에서는 만폭동·금강대·진혈대·개심대·화룡소·불정대 등 내금강의 뛰어난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3단에서는 산영루·총석정·삼일포·의상대·경포·죽서루·망양정 등 외금강·해금강과 동해안에서의 유람을 노래하고 있다. 4단에서는 여로의 종착으로 내면적 갈등의 해소와 애민 정신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금강산과 관동의 절경 유람 및 애민 정신

38.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 해설 : 화자는 '개심대'에 올라 금강산의 만이천 봉우리를 조망하고, 그에 대한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금강산의 봉우리마다 맺혀 있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먼저 묘사하고 금강산의 기운을 흠어 인걸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봉우리의 정다움 등 금강산을 보고 느낀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화자는 '금강대'의 '선학'이 '서호 넷 주인'을 반기는 것처럼 자신을 반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자연에 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진혈대'에 올라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화자가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화자는 '진혈대'에서는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으며, '불정대'에서는 십이폭포의 장관에 감탄하고 있다. '진혈대'와 '불정대'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는 '화룡소'를 보며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다고 묘사하면서 '화룡소'가 넓은 바다와 이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불정대에 오르고 있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는 드러나 있다.

39.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A]에서는 금강산 봉우리가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고 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동해를 박차는 것 같다고 하면서 금강산의 웅장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백옥'과 '동명'을 통해 금강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A]에서는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부용'을 꽂아 놓은 것 같기

도 하고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봉우리를 연꽃과 백옥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A]에서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동해를 박차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을 꺾어 놓은 것 같기도 하면서 금강산의 크고 거대한 모습,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④ [A]의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제시한 것으로, 대구적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날고, 뛰고, 서 있고, 솟는 등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금강산 봉우리의 역동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⑤ ‘고짚는 듯’과 ‘박차는 듯’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보이는 표현으로, 금강산 봉우리가 아름다움과 웅장함 등 다채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해설 :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생겨날 때에 금강산의 만이천 봉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자연의 미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혈망봉’은 ‘천만겁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 대상으로, 변치 않는 지조를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혈망봉’을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은 작가가 지조라는 가치를 투사하여 ‘혈망봉’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② 맑고 깨끗한 금강산의 기운을 흠어 내어 인걸을 만들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는 ‘개심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을 통해 목민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있다.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를 은하수를 베어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폭포를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연의미를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에 대해 이백도 여산 폭포가 더 낫다는 말을 못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이백의 시구에 등장하는 관념적인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닌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41~45] 문학

[41~45] 고전 소설 · 시나리오 복합 - (가)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시나리오 - 최동훈, ‘전우치’

(가)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고전 소설이

다. 서사구조 면에서 일대기적 구성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전우치가 도술을 부리며 일으킨 사건과 행적들을 삽화적으로 나열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온갖 도술로 악한 벼슬아치나 타락한 중에게 벌을 주고, 임금과 조정을 희롱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홍길동전」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전우치전」이 「홍길동전」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으로 보고 주제의 측면에서 두 작품을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사회 소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주제]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

(나)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고전 소설 「전우치전」을 현대적 액션 코미디물로 변용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500년 전 조선 시대와 현대를 배경으로 오가며 전설의 피리 ‘만파식적’을 두고 전우치가 화담 및 요괴들과 도술로 대결하며 사투를 벌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전우치가 둔갑술을 써서 부패한 권력자인 왕을 속여 곤경에 빠뜨리는 장면이다.

[주제] 요괴를 상대로 하여 벌이는 전우치의 뛰어난 도술과 활약상

4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화담은 전우치의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한다고 말하며 전우치를 죽이려 한다. 전우치가 사죄하자 화담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선도(仙道)를 닦’기를 권한다. 전우치는 이에 응하여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게 된다. 따라서 ‘화담’을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끄’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선도를 닦기 위해 영주산으로 함께 가기를 권유한 인물은 전우치가 아니라 화담이다. ③ 화담은 도술을 써서 달아나는 전우치를 공격하여 제압할 뿐 전우치의 공격을 받지는 않는다. ④ 화담이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기를 제안하자 전우치가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나라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는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화담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기로 한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우치의 집에 찾아와 영주산으로 함께 갈 것을 권하였다.

42.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해설 : 전우치는 술법으로 왕과 조정의 신하들을 희롱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우치를 ㉠처럼 나라에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우치는 모친에게 ‘효’를 이행하기는 하나 ‘충’을 행하지는 않으므로 충효를 다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얻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도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전우치는 천서를 통해 술법을 습득하게 되자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벼슬하여’ 입신양명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는 탁월한 능력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이다. ④ 전우치가 고려국 왕에게 ‘옥황상제 전교’를 빙자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하는 것은 임금과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모습이다. 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는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나눠 주고 화담과 함께 영주산으로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주인공이 나라에 공을 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영웅 소설의 결말과는 다른 모습이다.

43.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정답 해설 : [A]에서 전우치가 왕과 헤어지는 장면은 전우치가 탄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과 헤어질 때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산수화)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 전우치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지도 않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전하는 설정을 취하여 왕에게 매우 근엄하게 말하나 (나)에서 전우치는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등과 같이 말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A]에서 전우치는 ‘모친’을 가급적 빨리 ‘봉양’하기 위해 계교를 부려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게 하고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전우치는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A]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을 요구하며 황금을 ‘그날’ 대령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고 위협한다. 그런데 (나)에서는 전우치가 왕의 꿈에 나타나 내린 명령을 실행한 것에 대해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값아 줄 것이다’라며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⑤ [A]에서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면에는 요구 사항이 대화를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나)에서 전우치의 요구 사항은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라는 왕의 대사에 포함해 간략히 처리되고 있다.

44.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정답 해설 : 처음에는 왕의 손짓에 따라 궁중 악사들이 정악 연주를 시작한다. 하지

만 이후 전우치의 손짓에 따라 악사들은 ‘무엇에 홀린 듯’ 전우치가 좋아하는 다른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따라서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음악이 계속 바뀌거나 이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와 왕과의 갈등은 전우치가 ‘나를 아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계기로 왕이 ‘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라고 반응하는 것에서 표출된다. 이로써 사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②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는 전우치의 말은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부패한 왕과 대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③ 처음에 왕은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알고 ‘고개를 더 낮추’며 최고의 예우로 대한다. 그러나 이는 전우치의 정체성이 밝혀질 때 전우치가 왕을 ‘능멸’한 일이 되고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④ 전우치에게 속은 왕은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떠받들다가 전우치가 정체를 드러내자 ‘도사 놈’으로 바뀌어서 부른다. 이로부터 전우치에 대한 왕의 인식이 적대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45.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

정답 해설 : ㉞은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보기 어렵다.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도술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번갈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바람을 불게 하고 장대비를 내리게 하며 전우치가 땅을 접어 달리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으로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방법으로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할 수 있다. ② ㉡: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클로즈업(close-up)하여 화면에 가득 담음으로써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③ ㉢: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줌으로써 천군들의 정체를 알게 된 왕이 느끼는 당혹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 왕을 농락하고 떠나는 전우치의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고,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줌으로써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